**HI-ARC**

**2021-1 HI-ARC 자율 스터디 활동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
| 스터디명 | 높은산 Git은골 | | | | | |
| 학습일시 | 210410 | 진행차수 | 2 | 학습시간/장소 | | 1시간/웹엑스 |
| 참석자 | 권예빈(서명) | 김기선(서명) | | | 김종호(서명) | |
| 박장성(서명) | 정재영(서명) | | | (서명) | |
| 구분 | 내용 | | | | | |
| 학습목표 | 1. 스터디 소유의 깃허브 레포지토리(https://github.com/kimchist/NPS\_GTG)를 만든다.  2. 깃허브 원격 저장소와 소통하는 법(push/ clone/ pull)을 배운다.  3. 책에서 설명하는 워크플로를 깃러닝브랜치 사이트를 통해 구현해본다. | | | | | |
| 학습 방법  및  학습 내용 | 높은산 Git은골  토요일 9시에 웹엑스에서 만난다. 지금은 만나서 토론하는 시간보다는 각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은 초반 시기이다. 가면 갈수록 웹엑스보다는 서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 깃허브 공동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보는 등 학습을 진행하고, 언제 모임을 스킵할지(시험기간) 정했다. 다들 잘 참여했다. 좋은 시작이다.  1. push/ clone/ pull을 통해 원격 저장소와 소통하기  깃을 통해 로컬 레포지토리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그 후, 깃허브에 저장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git remote 명령어를 통해 깃허브 저장소와 연동하는 법을 배웠다. 그 후, 자주 쓰이는 대표적 명령어 push, clone, pull의 사용법을 배웠다. push는 repo->remote, pull과 clone은 remote->workspace의 방향으로 실행된다. 이도 이론만 해서는 의미가 없기에 git bash/깃크라켄/소스트리 등 깃프로그램을 통해 실습해 보았다.  2. Branch early, branch often  깃은 브랜치이고 브랜치는 곧 깃이다. 위는 브랜치의 신조이다. 다른 CVCS와는 달리 깃에서는 브랜치가 매우 가볍고, 브랜치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브랜치는 곧 깃의 최고의 장점이다. 따라서 브랜치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브랜치에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커밋 객체), 브랜치 생성 방법과 브랜치 사이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merge와 충돌 관리에 대해서도 가볍게 배웠고, 브랜치 워크플로와 리모트 브랜치에 대해 배웠다.    3. 브랜치 워크플로 파악하기  브랜치를 더욱 이해하기 위하여 워크플로에 대해 배웠다. 책에 매우 설명이 잘 되어있다. 읽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깃러닝브랜치 사이트에서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3-way merge를 이용하는 롱러닝 브랜치와 토픽마다 브랜치를 생성하는 토픽 브랜치에 대해 배웠는데, 이는 배우는 입장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과제는 별첨하겠다.  그 외에도, 높은산 Git은골의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만든 뒤, 모든 멤버를 초대하고 다음 주부터는 각자 깃허브를 통하여 각자 분량의 보고서를 깃허브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음 목표는 관심있는 분야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은 뒤, 스터디에서 실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PR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깃허브의 핵심 기능에 한층 가까워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 | | | | |
| 활동 후기 | 깃과 깃허브의 공부는 실습이 전부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서 배웠던 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워크플로이다.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브랜치가 어떻게 실무에서 쓰이는지 아는 과정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도 깃을 쓸 때에는 이제 브랜치를 만들고 볼 것이다. 잘 안되면 삭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주에 깃 GUI인 gitkraken을 처음 접했는데 가히 혁명적이었다. gitbash로 CLI만 써보다가 GUI를 쓰니 이해가 잘 되었다. 앞으로 양쪽 번갈아가면서 써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LI를 통해야만 깃 명령어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을 모두 지켜주세요.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1차수 당 3매 이하로 작성해 주세요.
*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단순 나열은 지양해 주세요.
* 학습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기재해 주세요.
* 기타 공부한 자료는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 매주 작성한 활동 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주세요.

(2주 이상 미 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글자 포인트는 10pt로 작성해주세요.